

활성화 방향

어촌관광개발은 도시민의 관광·레저 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여 어업인의 어업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시와 어촌간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어촌은 갈수록 소득, 문화, 경제 등 정주생활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내부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수산

용역조사 뒤 장·단기계획 시·도별로 세부계획

중앙정부에 재정·행정지원 요청 유도

어촌관광개발사업의 활성화는 어업인의 소득 및 고용기회의 창출과 사회·심리적 자긍심을 고양하는 목적이지만, 종합개발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어촌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이나 무상의 보조 등을 통한 어촌의 발전이 목적이다.

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중국, 일본 등 인근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연근해 어장의 범위가 제한되고, 산업화에 따른 연안어장의 축소와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어업인의 어업소득 한계로 어촌의 소득원개발 방안으로서 어촌관광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도시민의 해양관광 레저 수요의 증대와 도시민의 욕구가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종래에는 단순자연경관을 관광하는 차원에서 가족단위형, 체제

조 강 현

해양수산부 어촌계획과 사무관

전통적 관광과 마을단위관광의 비교

구 분		전통적인 관광	마을단위 관광
시설	공간형태	집중적, 고밀도	분산, 저밀도
	규 모	대규모, 통합적기능	소규모, 가정적기능
	소 유	독점적, 대기업소유	개인, 지역의 소규모기업
시장	크 기	대규모	소규모
	계 절 성	높은 계절성	특정 계절 없음
경제	위 상	지배적 부문	보완적 부문
	영 향	높은 수입부문	낮은 수입부문

·체험형, 레저스포츠형 등의 형태를 추구하면서 특히 해안 쪽으로의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어촌관광개발은 어촌의 자연 공간·해양환경 등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여 어업인의 어업의 소득증대를 제고시킴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 효과를 유발시켜 어촌의 재정 자립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어촌사회의 다양한 전통적 생활양식과 유서깊은 사적지, 전래의 관습을 도시민에게 체험케함으로써 어촌과 도시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어촌관광개발 과정에서 교통, 통신, 어항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결비되어 생활개선 및 복지수준 향상으로 노동력의 탈어촌화 방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함께 어촌의 순박한 인심, 광활한 갯벌, 아름다운 아침·저녁의 풍경, 시원한 공기 등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케하여 자연환경 보존과 무분별한 관광시설의 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귀중한 자연의 혜택인 백사장, 기암절벽, 방풍림 등의 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활성화 추진방향

○ 어촌마을 중심의 관광사업 추진

기존의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장단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단위어촌마을에 집중 투자하는 마을중심의 관광사업 (Comm-unity Based Tourism: CBT)추진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 어촌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어촌관광개발의 방향에 대해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광개발사업의 내용과 투자 규모, 현지주민의 참여수준, 기반시설 확충, 각종 관광상품 개발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개발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 시장원리에 준거한 어촌 관광개발

어촌관광자원의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어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시범적인 관광어촌을 육성하고, 특색있는 어촌관광마을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지역균형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 기존 어촌종합개발사업 중 관광관련부분을 어촌 관광개발사업으로 전환토록 유도

기존 어촌종합개발 중 관광 관련 시설투자사업은 Software 위주의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전환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로 투자효과를 거양한다.

어촌관광개발과 어촌종합개발의 차이점

구 분	어 촌 관 광 개 발	어 촌 종 합 개 발
기 술	○ Software 개발 지원	○ Hardware 개발 지원
사 업	○ 소득원사업 투자	○ 사회간접자본투자
자 금	○ 중장기 융자사업	○ 단기 보조사업
개 발	○ 환경친화적 개발	○ 연안개발
결 과	○ 경제, 문화 심리적 지위 향상	○ 경제적 지위 향상

○ 사업의 다양화 시도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어촌관광개발은 대규모 거점 지구와 소규모 단위지구로 구분하여, 가급적 대규모 거점 지구는 체제형(滯在型)으로, 소규모 단위 지구는 경유형(經由型)으로 개발하고, 물리적인 시설위주의 투자를 억제하는 한편 특징적 관광서비스 제공이 중시되는 Software 개발 계획을 중시해야 한다.

○ 어촌휴양마을의 단계적 육성

어항개발과 어촌종합개발이 추진 또는 완료된 지역, 관광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어촌 휴양마을로 지정 육성하고, 계곡, 해수욕장 등 기존 관광지에만 한정되기 쉬운 방문패턴을 변화하여 전원지향적 자연의존적인 어촌고유환경을 새로운 관광매력 대상지로 개

발한다.
○ 어촌별 특화사업의 전개 어촌관광개발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어촌별로 보유 관광자원의 장점 및 다양성을 충분히 살리는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유도한다. 그리고 주제가 있는 어촌관광개발을 위해 고유한 생활양식이나 전통문화, 어장의 종류, 특성 등에 따라 차별화를 시도한다.

○ 관광개발사업은 융자지원 사업으로 추진

종합개발사업은 공공부문에 어촌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이나 무상의 보조 등을 통한 어촌의 발전이 목적인 반면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어업인의 소득 및 고용기회의 창출과 사회·심리적 자긍심을 고양하는 것이 목적으로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추진방향

1) 볼거리의 개발

- 풍어제, 어신제, 문화예술축제, 레저스포츠행사 등 관광이벤트상품의 개발 및 정기 개최
- 해양민속촌, 박물관, 수족관, 기념관 등의 설치·운영
- 야간 선단(오징어, 갈치 등) 출항식 등의 관광이벤트화
- 지역별 Landmark 개발 (전망대 설치등으로 명소화 도모)
- 어장에서의 수중관람시설 및 수중활동의 이벤트화 (일일 해녀 등)
- 항구 등 바다와 접한 지역에 전망휴식시설 설치를 통한 명소화 도모

2) 먹거리의 개발

- 횃집의 위생수준 개선, 다양한 어촌지역의 고유 음식 개발지원
- 어촌의 정취가 살아있는 어시장, 선상식당 등의 개발(시장, 어선상에서도 회를 먹을 수 있도록)
- 식음료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업소 배치

3) 살거리의 개발

- 어물, 토산품 등의 직판장 설치 및 종합관광어시장의 설치
- 어선상에서의 직판장 설치
- 지역 어획물, 토산품 등의 적극 개발(일어촌 일품운동 : 역사와 문화 등을 포함)

4) 놀거리의 개발

- 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 산책로 개발
- 낚시터, 유람선장, 바다주제공원 등의 설치·운영
-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수중활동 개발

5) 관광자원시설의 개발

- 숙박시설의 다양화(전통식 관광여관, 휴양콘도미니엄, 관광민박 등)
- 교통체계의 완비(어촌관광버스, 관광역마차, 자전거 정류소, 주차장 등)
-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광안내소 배치
- 환경의 적극적인 보전으로 자연친화적 환경어촌 정비와 경관의 최우선 관리

6) 마케팅 전략의 개발

- 적극적인 광고 및 홍보대책 강구 및 체계적 집행
-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어촌관광개발의 기획 강화


7)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 기존의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지자체에서 사업자 선정보고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나
- 지자체에서는 능동적·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투자계획을 지역설정에 맞게 수립, 중앙정부에 재정 및 기술 요청토록 활성화

양한 어촌관광사업을 개발토록 유도하여 지역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용역조사 재원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장기 활성화대책 수립 및 시행

용역결과에 따른 장·단기적인 어촌관광 기본계획을 수립, 각 시·도에 시달하여 관내 어촌마을환경에 적절한 세부 개발계획을 작성, 중앙정부에 재정 및 행정 등의 지원을 요청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

활성화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조사 실시

전국 어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부존관광자원 및 개발적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어촌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일관된 기본방침에 의하여 지방정부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